



전북대병원, 암 생존자 위한 '힐링투데이' 진행

전북대학교병원(병원장 유희철)은 암 생존자 주간을 기념해 8일 건지산 일원에서 암생존자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응원하는 '힐링 투데이' 행사를 진행했다.

암 생존자 주간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암 생존자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 편견 없는 암 생존자의 일상을 돕기 위한 것으로 지난 2019년부터 6월 첫째주를 정해 전국 권역암생존자통합지원센터를 중심으로 다채로운 기념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전북권역암생존자통합지원센터(센터장 송은기 교수)가 주관한 이번 힐링 투데이 행사는 암 너머 건강한 일상을 슬로건으로 암생존자의 건강관리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는 건강강좌와 건지산 숲길 걷기 등의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특히 건지산 숲길 걷기 행사는 코로나19 이후 처음으로 진행된 대면 힐링 프로그램으로 암 생존자 36명이 참석해 건지산 편백나무 숲의 맑은 공기를 마시면서 산책과 스트레칭 등을 통해 정서적 심리적 안정을 도모했다.

송은기 센터장은 "코로나19로 만날 수 없었던 암생존자들이 이번 대면 행사를 통해 심신 건강과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행복한 시간이 되었길 바란다"고 전했다. /김윤상 기자



김윤균 익산시의원, 존경하는 지도자상 수상

익산시의회(의장 유재구) 김윤균 의원은 8일 마동행정복지센터에서 마동새마을부녀회(회장 이청자)로부터 지역균형 발전을 위하여 노력한 공로를 인정받아 '존경하는 지도자상'을 수여받았다.

김 의원은 익산시의회 최다선(5선)의원으로 1995년 시의회에 첫발을 내딛은 후, 중앙동, 평화동, 인화동, 마동을 지역으로 시민들의 삶터 구석구석을 살피며 따뜻한 마음으로 소통하는 의정활동을 펼쳐왔다. 지난 1일 치러진 지방선거에 출마하지 않아 오는 30일을 끝으로 임기를 마무리한다.

김 의원은 "시간 여러분께서 보내주시는 격려와 성원에 감사드립니다"며 "앞으로도 제가 받은 사랑을 돌려드릴 수 있도록 봉사하는 삶을 살겠다"고 말했다. /익산=이재훈 기자



남원시농업기술센터, 명품농업대학 개강

남원시농업기술센터(소장 고인배)는 지난 7일 전문농업경영인육성을 목표로 운영하는 제13기 명품농업대학을 개강했다.

올해 명품농업대학은 학과별 총 24회로 6월부터 11월 중순까지 약 6개월간 주 1회, 4시간씩 총 16회로 구성해 분야별 최고의 전문가들을 초빙해 운영한다.

교육은 고품질 재배기술, 경영·마케팅, 정정실습, 남원 전통음식 발굴 등 체계적인 이론과 현장 실습 및 견학 등 영농현장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진행할 예정이다.

남원명품농업대학은 2010년도에 개설되어 총 1678명의 졸업생을 배출했으며, 올해 입학생은 총 95명이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시, 어족자원 증식 위한 소가리 방류

남원시는 지난 3일 요천 일원에서 내수면 어업계회원, 관계공무원 등 15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염병 검사를 마친 소가리 치어 21,000미를 방류했다.

이번 행사는 남원시의 내수면 어족자원 증대와 어업인 소득증대를 위한 것으로, 소가리는 농어과의 대표 어종으로 동작이 매우 민첩하고 지느러미에 독카기가 있어 우리나라 하천의 최상위 포식자로 생태계 교란 외래어종인 배스와 블루길 등을 포식해 생태계 회복에 도움을 주는 종이다.

시 관계자는 "요천의 균형 있는 생태계와 어족자원 증대를 위해 토종어류 치어방류, 교란어종 퇴치, 불법어업 행위 단속 등의 노력을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건강하고 따뜻한 가족의 정을”

덕진구 사랑의올타리봉사단, 소외가정에 밀반찬 전달

전주시 덕진구(구청장 최현창)는 8일 '덕진구 사랑의올타리봉사단' 주관으로 회원 4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사랑나눔! 정성들여! 행복나눔! 나눔행사를 진행했다.

이날 행사에서 봉사단원들은 정성껏 만든 열무김치, 고등어조림, 김자반 등 밀반찬을 관내 소외계층과 어르신들에게 전달했다. 봉사단은 또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따뜻한 가족의 정을 느낄 수 있도록 말벗, 청소, 식사행여드리기 등 행복한 시간도 가졌다.

이성희 회장(덕진구 사랑의올타리봉사단)은 "작은 정성으로 어르신들이 단 하루라도 건강하고 따뜻한 가족의 정을 느낄 수 있으면 좋겠다"며 "더불어 행복한 전주가 될 수 있도록 봉사활동을 지속해서 펼쳐가겠다"고 말했다.

최현창 덕진구청장은 "항상 곁에서 내 부모처럼 어르신들을 살피는 봉사자들 덕분에 밀반찬을 받으시는 어르신들 얼굴에 웃음꽃이 활짝 필 것 같아 매우 기쁘다"면서 "우리 주변에 소외된 이웃들이 따뜻한 보살핌으로 항상 웃을 수 있도록 복지 행정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완산구 해바라기봉사단, 소외계층에 밀반찬 전달

전주시 완산구(구청장 김병수) 해바라기봉사단(회장 황의숙)은 8일 관내에 거주하는 홀몸어르신, 거동 불편 장애인 부자세대 150가구에 밀반찬을 전달했다.

이날 봉사단 회원 30여 명은 정성껏 조리한 열무김치, 계란조림 등 밀반찬을 몸이 불편해 음식조리에 어려움을 겪는 가구에 전달했다. 또 혼자 사는 노인 및 거동이 불편해 외출이 힘든 소외계층의 말벗이 되어주며 안부를 확인하는 시간도 가졌다.

황의숙 완산구 해바라기봉사단 회장은 "많은 양의 음식을 조리하는데 힘이 들지만 맛있게 밀반찬을 드실 이웃들을 생각하면 봉사하는 시간들이 소중하고 감사하다"고 말했다.

김병수 완산구청장은 봉사현장을 찾아 봉사단을 격려



하며 "해바라기봉사자들의 사랑과 정성이 소외된 이웃들에게 전해져 모두가 행복한 날이 되기를 바라며, 나눔 문화 확산에 적극 동참하여 따뜻하고 행복한 완산구를 만드는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윤여홍 美 NC A&T주립대 교수, 올리버 맥스가드너 어워드 수상

전북대학교 기계공학과 출신(94학번)인 윤여홍 미국 NC A&T 주립대 교수가 미국 최고 권위의 '올리버 맥스가드너 어워드(Oliver Max Gardner Award)'를 수상했다고 밝혔다. 한국계 미국 대학 교수로서는 최초로



이 상은 노스캐롤라이나 주지사를 역임한 올리버 맥스가드너의 이름을 따서 만든 상으로, 1949년 이후로 매년 16개의 노스캐롤라이나주에 있는 대학들이 연구력 등이 가장 뛰어난 교수 한 명씩 추천해 이 중 단 한 명에게 주어지는 명망있는 상이다.

노스캐롤라이나주 대학 교수로서 받을 수 있는 가장 영예로운 상으로, NC A&T 대학에서는 윤 교수가 2번째 수상이다.

이에 따르면 윤 교수는 1994년 전북대 기계공학과에 입학해 동 대학원에서 석사과정을 마친 뒤 원광대 의대에서 근무하다가 University of Cincinnati에서 박사, 박사후 연구원, 연구교수를 역임했다. 이후 미국 North Carolina A&T State University에 공대 화학, 생물학, 바이오공학과 교수로 2010년

부터 재직했다. 윤 교수는 현재 절기세포를 이용한 미니브레인(Mini-brain) 이란 연구과제로 미국의 NIH, NSF, DoD 에서 30억 규모의 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TED talk, Keynote speaker 및 각종 저널에 연구를 출판했다.

특히 미국 국립과학재단의 가장 큰 연구비 지원 과제에서 Thrust Leader로서 생분해성 스텐트 및 정형외과용 의료기기를 연구했다. 최근엔 NC A&T 대학에서 새로운 공대 건물을 신축하고 첨단 바이오 장비(40억 규모)의 장비를 새로 구축하는 데도 기여를 했다.

윤여홍 교수는 "이 상은 혼자만의 노력으로 이뤄진 것이 아닌 NC A&T 대학 관계자들과 실험실 학생들의 도움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며 "모교인 전북대학교의 많은 학생들이 꿈과 희망을 갖고 바이오 공학 분야 연구에 도전해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동원 총장은 "모교 출신 윤여홍 교수님의 수상을 진심으로 축하 드린다"며 "앞으로 윤 교수님과 같은 우리대학 출신의 세계적 연구자들을 많이 배출하는 연구중심대학으로 도약하기 위해 대학 차원에서 학부 교육과 연구지원 등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정은성 기자



중양동 지사함, 어르신 건강드림 중식봉사 실시

전주시 중양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 김호정)는 7일 '어르신 건강드림 중식봉사사업'으로 지역사회와 훈훈한 정을 나눴다.

어르신 건강드림 중식봉사는 중양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중양동 소재 음식점에서 독거어르신 대상으로 식사를 제공하며 어르신의 외로움을 덜어드리고 건강 등 안부를 살피는 사업으로, 매회 20여 명씩 총 100여 분의 어르신에게 4회에 걸쳐 진행한다.

김호정 위원장은 "식사를 하시며 기뻐하시는 어르신들의 모습을 볼 때 우리 부모님을 대접하는 것처럼 기분이 너무 좋았다"면서 "앞으로도 어려운 어르신들을 위해 지속적이고 따뜻한 나눔 행사에 더욱 관심을 가지고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인후3동 새마을협, 취약계층에 선풍기 지원

전주시 덕진구 인후3동 새마을협의회(회장 황승일)는 8일 인후3동행정복지센터 4층 회의실에서 여름철 폭염에 피해를 입기 쉬운 관내 취약계층을 위해 선풍기 50대를 전달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새마을협의회 회원들은 관내 홀몸어르신, 어린이시설, 장애인시설 중 선풍기를 마련하지 못하였거나 노후화된 선풍기로 사용이 어려운 대상을 사전에 조사해 선풍기를 전달했다.

황승일 회장은 "올해 폭염이 예상되는 가운데 선풍기지원으로 지역 내 취약계층의 건강하고 시원한 여름나기에 도움이 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아리울수산, 가지미·폴치 1600만원 상당 후원품 전달

평소 도내 저소득가정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는데 관심이 높았던 (유)아리울수산(대표 박금옥)에서는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전북지역본부(본부장 구미희)를 통해 가지미 45박스과 폴치 37박스, 총1,600만원 상당의 물품을 전달해 훈훈함을 더하고 있다.

이번 후원물품 전달은 작년에 이어 2년째 진행되고 있으며 코로나19 장기화 등 어려운 사회상황으로 더욱 소외되고 있는 저소득가정의 아동들에게 건강한 먹거리를 전하고자 한다. 금번 후원물품은 전북광업투자은행을 통해 아동가정과 아동복지기관에 전달 될 예정이다.

(유)아리울수산 박금옥 대표는 "우리 아동들에게 든든한 위료가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전라북도 지역의 저소득가정 아동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나눔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치겠다"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



남원 죽향동, 홀몸어르신에 콩나물재배 키트 전달

남원시 죽향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공위원장 허인선, 민간위원장 정태식)는 8일 홀로 사는 어르신 80세대에 콩나물 키트를 전달했다.

이번 사업은 연합모금액으로 죽향동특화사업으로 추진하였으며, 키우는 재미도 느끼고 콩나물로 영양을 섭취하실 수 있도록 응원의 마음을 담아 전달하고 어르신들의 안부를 묻고 말벗 나눔 등의 볼품도 병행, 세대당 콩나물 콩(500g)을 추가로 지급하였으며,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콩나물 재배 키트를 전달받은 한 어르신은 "예전 시골집에서 시루에 콩나물을 키우던 때가 생각난다"고 하시며 감사의 말을 전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여성새로일하기센터, 장기취업자 사후관리 진행

남원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서는 8일부터 오는 14일까지 장기취업자를 위한 사후관리 사업이 진행된다.

이번에 추진하는 사업은 취업자에게 용기와 의욕을 북돋아 주고 든든한 동행자가 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상담사들이 새일센터를 통해 취업에 성공한 후 1년 이상 근무하고 있는 여성 근로자 15명을 대상으로 근무자를 직접 방문해 취업자를 응원하는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

사업에 참여한 한 여성취업자는 "새일센터 이벤트로 이렇게 축하와 응원을 받게 되니 기쁨과 열정이 되살아나는 기분이었다"고 마음을 전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임실군공무원노조, 주거환경개선 봉사활동 펼쳐

임실군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김진환)이 관내 어려운 이웃을 위해 팔을 걷어붙이며 주거환경개선 봉사활동을 추진했다.

김진환 위원장 및 조합원 가족 등 25명은 지난 주말 오수면 종동마을 소재 이웃을 찾아 집 내·외부 청소와 재활용 분리수거 등 실내외 환경 정리를 실시하며 쾌적한 주거환경을 위해 구슬땀을 흘렸다.

또한 30만원 상당의 가전제품을 전달하며 힘든 환경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이웃을 따뜻하게 위로하며 이웃사랑을 실천했다. 또한 연 2회 정기적으로 자원봉사를 실시하고 있다. /임실=진홍영 기자